

대강절 첫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OF ADVENT

주후 2023년 12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통일 10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5번 구주 강림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11:1-12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찬양대
설 교 Sermon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Song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통일 43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개역개정 **롬11:5-6**)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And if by grace, then it is no longer by works; if it were,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NIV **Romans 11:5-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3 (주일)	12/4 (월)	12/4 (화)	12/5 (수)	12/6 (목)	12/8 (금)	12/9 (토)
	대하2	대하3,4	대하5:1-6:11	대하6:12-42	대하7	대하8	대하9
본문	요일2	요일3	요일4	요일5	요이1	요삼1	유1
	눅17	눅18	눅19	눅20	눅21	눅22	눅23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12/5수 오후7:30)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벤전3:13-22)

토/요/ 새/벽/기/도/회

토요 새벽기도회 (12/9토 오전6:30) “하루에 일곱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사119:161-168)

지난 주일(11/26) 말씀

“말씀이 네게 가까워”(롬 10:8-15)

원래 구약 히브리어에서 “믿음” 또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한 지적 동의나 확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행위와 순종이 뒤따르는 통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거나, 또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말씀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는 말씀은 단지 말 한 마디로 쉽고 간편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고, 구원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롬 10:8)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능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의미는... 말씀(Logos)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신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주여, 주여” 만을 외치는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더욱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